

“도-농 교류 모든 것 보여 드립니다”

장성군이 걸연 지자체와 통상적인 농특산물 판매활동 외에 문화·체육 행사는 물론 학생들의 체험학습까지 공유하는 기능성 도농교류에 앞장선다.

장성 '2009년 기능성 교류 추진 관련 간담회'

홈스테이·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모델 제시

군은 지난 96년 서울 중구청, 98년 경남 함안군에 이어 지난해 9월 경기도 과천시와 결연한 바 있다. 과천시의 결연 이전만 해도 해당 지자체 아파트와 직거래 및 한미당 축제 등을 통해 장성산 농특산물을 판매해오거나 농촌체험행사를 하는데 그쳤다. 이 행사에 따른 매출도 10회, 3억여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장성군은 과천시와의 결연

을 계기로 쌍방향의 지속적인 교류사업을 전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이달 초 군청 상황실에서 박양중 부군수를 비롯해 읍면농협장, 관련 사회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능성 교류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결과 각 실과별로 기존의 농산물 직거래와

함께 친선도모, 학습교류, 문화교류 등 다양한 교류방안이 쏟아져나왔다. 특히 장성교육청은 오는 8, 12월 도농학교 상호교류 체험학습을 추진할 계획이며 새마을운동지회·행정동우회 등은 양 지역의 문화유적지 답사 등 민간차원의 교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예총 장성군지부는 과천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초청음악회, 미협 장성

군지부는 교류전 등을 갖고 공무원 스포츠 동호회도 상·하반기로 나눠 축구·테니스·탁구 등 친선경기를 통해 우의를 다질 방침이다. 이청 장성군수는 “올해 분야별 교류사업은 읍면, 동간 결연추진, 공무원 스포츠 동호회 친선교류, 문화·예술 교류 등 7개 분야 20개 단체가 참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과천시와의 기능성 자매결연을 통해 양 지역간 상생발전을 모색한데 이어, 이같은 교류를 또 다른 자치단체에까지 확대해 새로운 도농교류의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장성=류승선기자 yjs52@



장성군이 범군민 운동으로 '탐진강 맑은 물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탐진강 천변에서 열린 '제 1회 정남진 물축제'.

장흥 '탐진강 맑은물 만들기' 나섰다

12개 사회단체, 퇴적물·이끼류·잡초 제거 등 참여

장흥군이 탐진강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사회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탐진강 맑은물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연중 실시될 이 프로젝트는 이달부터 오는 7월 물축제 전까지를 중점추진기간으로 정해 관내 사회·봉사단체들이 바다 퇴적물·이끼류 제거, 수중 정화활동, 강변쓰레기 수거와 잡초제거 등 오염예방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군은 이번 프로젝트를 초·중·고 학생 동아리나 소모임 클럽 등의 자원봉사활동으로 확산시켜 범군민 운동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군은 사회단체장 면담

을 통한 홍보 및 각 단체별 신청결과에 따라 일정별·담당구역별 중점추진구역을 지정해 오염예방활동을 펼치게 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현재 여성단체협의회를 포함해 해방전우회 등 12개 단체 660여명이 참여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담당구역별로 탐진강 청소 및 정갈이제, 부유물 등 활동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왕인축제 보며 영암도기도 구입

영암 축제기간 50% 할인판매

영암군 도기문화센터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왕인문화 축제' 기간동안 도기를 테마로 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영암군의 브랜드 상품 풀뿌리농산물 등 어원 불패기 방식으로 탄생되는지를 보여준다. 또 도기문화센터 2층 현대 도자실에서는 영암도기 10주년 기획전시회가 마련된다.

아외에서는 도예작가 초대 워크숍과 모양연구소에 숨어있는 영암도기 찍어보기, 영암도기 빚기, 퍼즐로 빚어보는 도자기 등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도 함께 열린다. 문의(061-470-2764)

도기문화센터는 영암도기 전문목을 왕인박사유적지내 영암도기 홍보관과 도기문화센터 명품 판매장 2개소에서 50% 할인 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영암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장작가마에 불을 지피

어렵게 판매한다. /영암=박재선기자 pjs@

영암에 기숙형 공립학교

'삼호高' 2011년 개교

18학급 504명 규모

영암 삼호고등학교(삼호읍)가 설립돼 오는 2011년 개교한다. 영암군은 130억원이 투입돼 학년당 6학급, 전체 18학급에 504명 규모를 갖춘 삼호고 설립이 확정돼 명문고로 육성하려는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기숙형 공립학교로 설립될 삼호고는 학생 수와 규모에 따라 4인 기준 20실에서 80실까지 다양하게 신축하며, 한옥으로 지을 기숙사에는 면학실과 그림 학습실, 멀티미디어 학습실 등 다양한 학습공간이 갖춰진다.

또 전천후 체육관과 전교생을 수용할 수 있는 도서관에는 2만여권 보유 장서실, 정보검색실,

세미나실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면학관에는 극장식 시청각실과 음악실, 미술실, 각종 교과실이 만들어져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습 동아리 활동을 펼치고 EBS 교육방송과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도도록 할 예정이다.

김일대 영암군수는 “농촌학교라는 지역적 한계와 사교육에 대한 인프라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학내에서 모든 학습·취미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교과 심화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방과후 교육과정은 학생 선택형 무학년제 보충수업, 야간 맞춤형 교육활동을 벌여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히 서울지역 명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박재선기자 pjs@

장흥에 70만속 규모 조미김 공장

(주)세일, 수출시장 공략 나서

전국 김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마른 김 생산 등 1차 가공에 머물러 있던 전남에 2차 가공품인 조미 김 생산공장이 준공돼 수산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가공·수출체인 ㈜세일이 이날 장

흥에서 조미 김 가공공장 준공식을 하고 '아라내음(바다향기의 순 우리말)' 브랜드로 세계 수출시장 공략에 나섰다.

㈜세일이 건립한 김 가공공장은 조미 김 생산시설로 연간 70만속 정도를 생산하며 300만속 정도를 동시에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공장도 함께 건립해 연간 1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난해 전남지역 김 생산량은 모두 14만1천으로 전국 김 생산량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물김에서 마른 김으로 가공하는 1차 가공에 그치고 있고 조미 김 등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의 2차 가공은 다른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세일은 앞으로 585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1년까지 연간 140만속의 조미 김 생산시설을 갖춰 도내에서 1차 가공된 김을 납품받아 '아라내음' 브랜드로 일본과 대만·미국 등지로 수출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hakwon (한빛고시학원) featuring a '9급 공무원 이론반' and '9급 문제풀이' cours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 URL.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제 (KIN) law firm, providing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about legal services in the Kwangju and Jeonnam regions.